



영산강 강변도로 마지막 구간 본격 착공

2027년 개통... '남악오룡~일로북룡'

전남도가 가로수 숲길과 전망대, 쉼터를 함께 조성해 세계적인 명품 드라이브 코스를 목표로 개설 중인 '영산강 강변도로' 미개통 구간을 착공한다.

전남도는 나주 영산포에서 무안 남악신도시 오룡지구까지 총연장 52km의 지방도 825호선 마지막 구간인 '영산강 강변도로 2-2단계 개설공사'를 본격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2-2단계 개설공사'는 전남도청이 소재한 무안 남악신도시 오룡지구에서 일로읍 북룡리까지 13.2km 구간이 대상이다.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수의 지역 업체가 참여토록 2개 공

구로 나눠 발주했다. 총사업비는 1523억원이 투입되며 사업 기간은 5년으로 대규모의 도비가 투입된다. 오는 2027년 준공되면 영산강 강

변도로는 전 구간이 개통된다. 스포츠·관광·레저 등과 연계되는 명실상부한 명품 관광 도로로서 지역관광 활성화와 남악신도시 교통 체증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주 영산동에서 무안 몽탄까지 1단계 34km 구간은 지난 2020년 3월 개통했다.

지난해 8월엔 '2-1단계 구간'인 무안 몽탄에서 일로 북룡리까지 4.8km 구간을 완공해 현재 통행 중이다.

그동안 영산강 주변 시·군 주민과 사전거 동호회, 지역을 찾는 관광객 등 도로 이용객들은 강변도로 전 구간 조기 개통을 염원해왔다.

여기에 무안 오룡지구 개발 후 남악 나들목의 차량 정체가 심각해 교통량 분산을 통한 남악과 오룡지구 출퇴근 차량 교통 체증 해소도 시급한 실정이었다. /김호 기자

'집중호우 피해' 석곡천 제방 응급 복구

밤사이 광주·전남에 거센 장맛비가 쏟아진 28일 오전 광주 북구 석곡동 석곡천 제방 50m 가량이 불안 물에 유실, 응급 복구가 펼쳐지고 있다. /뉴스시스

광주·전남 '물폭탄'...감전·침수 속출

이틀간 275mm...수문 개방 60대 하천 휩쓸려 실종

나들목 유실·정전 등...농경지 486ha 침수

"내일까지 최대 200mm 비...관리·안전 주의"

광주·전남에 이틀 동안 최대 274.6mm의 세찬 장맛비가 쏟아지면서 크고 작은 생채기를 남겼다.

시간당 71.5mm의 강한 비로 주민 1명이 실종되고, 도농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잇따랐다.

28일 광주기상청에 따르면, 27일 정오부터 이날 오전 11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광주 274.6mm, 담양 봉산 217mm, 화순 북면 207.5mm, 보성 197.9mm, 함평 196mm, 나주 185.5mm, 곡성 184.5mm, 여수 170.4mm다.

시간당 최고 강수량은 함평 71.5mm(27일 오후 9시 4분~10시 4분), 광주 서구 풍암동 56.5mm(27일 오후 9

시 43분~10시 43분), 고흥 도화 55.5mm(28일 오전 2시 19분~3시 19분)를 기록했다.

급류로 실종자가 나왔고, 주민들이 임시 거처로 옮겨졌다.

27일 오후 10시 32분께 함평군 언다면에서 60대 여성이 실종돼 경찰과 소방 당국이 수색 중이다. 이 여성은 폭우로 불어난 하천의 수문을 열려다가 물살에 휩쓸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 5시 30분께 광주 북구 석곡동 석곡천 제방 50m가량이 불안 물에 유실돼 주민 100여 명이 긴급 대피했다가 복귀했다.

이날 오전 3시 40분께 광주 동구 증심천교가 범람할 우려가 있다 일대 6가구 12명이 천척 집 등으로 대피했다. 이날 오전 2시 53분께 광주 동구 소태동 한 마을 나무가 쓰러져 5가구 주민 12명이 안전지대로 이동했다.

폭우로 공공·사유 시설 피해도 잇따랐다. 이날 오전 6시 32분께 광주 서구 풍암동 한 아파트 뒤편 옹벽이 무너져 안전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광주 제2순환고속도로 각하 나들목 진출입 구간 경사면 일부 토사가 유실돼 응급 복구 중이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6공구 정거장도 침수됐다.

광주 동구 조선대 치과대학 앞 도로로 땅 꺼짐 현상이 발생했다.

광주 5개 자치구 주택·상가·숙박업소·전통시장 가게 등지에도 물이 차올라 배수 작업이 이어졌다.

정전과 농경지 침수도 발생했다. 이날 오전 1시부터 1시 53분 사이 광주 동구 계림동 공동주택 2곳에서도 정전 피해 신고가 들어왔다.

27일 오후 11시 43분께 나주 부덕동·세지면 일대 주택 154가구도 낙뢰로 정전이 발생했으나 응급 복구됐다.

같은 날 오후 9시께 광주 서구 금호동 공동 주택 30가구와 상가에서 변압기 낙뢰 화재로 전기 공급이 끊겼다가 2시간 30분만에 복구됐다.

함평 월야면 계림리 한 마을도 정전됐다 복구가 이뤄졌다.

나주에선 14개 읍·면·동 농경지 486ha가 물에 잠겼다.

광주기상청 관계자는 "내일 아침부터 모레까지 100mm~200mm가량의 비가 예보됐다"며 시설물 관리와 안전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도기 기자

광주마을버스 내달 24일 운행중단 예고

"추경에 적자지원 미반영시 전면 운행 중단" 선언

적자에 허덕이는 광주 마을버스 업체들이 전면 운행 중단을 선언했다.

28일 광주시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오는 7월 광주시 추경에 적자운영지원금을 반영시켜 주지 않을 경우 같은 달 24일부터 마을버스 운영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조합은 전남이 같은 뜻을 광주 5개 자치구에 통보했다.

현재 광주에서 마을버스를 운영하는 업체는 모두 5곳이다. 해당 업체들이 운영하는 마을버스는 12개 노선 총 85대이다.

조합 측은 "지난해 운영적자 규모만도 20억~30억 원에 달한다. 전년 동기 대비 연료비 130% 상승, 인건비 45% 상승, 신차출고가격 상승 등으로 적자가 쌓여가고 있지만, 지원금은 같은 형태의 교통수단인 시내버스 적자지원금의 20~30%선에 그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시·구가 산출한 지난해 운영적자지원금을 이번 7월 추경에 반드시 포함시켜야만 각 구청이 관련 지원 예산 업무를 할 수 있다"며 "마을버스 운영적자지원금을 정기예산에 미리 편성, 당해년도에 일부라도 운영적자분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조합 측은 "마을버스는 다른 교통수단보다 경제적이다. 환승역할도 담당하고 있다"며 도심교통의 모세혈관인 마을버스를 위한 재정지원 제도화를 강조했다.

광주시의회는 인건비·연료비 항목, 전기차전환 지원 등을 골자로 한 '광주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조선주 기자

기업수출 페스티벌 개최 2면

'출생통보제' 법사위 소위 통과 3면

출생아수 또 역대 최소 4면

유네스코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장성군
Jangseong

조선시대 성리학의 대가
[하서 김인후 선생]의 숨결이 살아 있는

장성 필암서원

호남매일 창사 23주년

청산도 절로 절로
 녹수도 절로 절로
 산도 절로 물도 절로하니
 산수간나도 절로
 아마도 절로 삼긴 인생이라
 절로절로 늙사오리

- 김인후 선생의 '자연가(自然歌)' -